

교직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정방향 탐색

-성신여대 사범대학 교수 및 학생의 요구분석-

이 숙 재*
장 영 희**
노 석 준***

《요 약》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이 현행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요구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연구 결과 교수와 학생들은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학점 구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사범대학에 개설된 교직과목에 대하여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통합교과의 경우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2학점으로 운영되는 학점 수에 대하여는 28%의 학생만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현행 실습기간(4주)에 대하여는 교수(44%), 학생(63%)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여 교육실습 전반에 걸친 세심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교직이수학점에 대한 변화추세 등을 고려하여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재조정하고 실습학점 및 시기, 기간 등 보다 체계적인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사범대학 교육과정(curriculum at the college of education)
교직전문성(teaching professionalism)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I. 연구 목적과 필요성

국가간의 교육경쟁은 교육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하며 이러한 교육경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교수와 학생을 연결하는 주요한 고리로서 또한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지식과 가치를 배분하여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고 있다(전성연, 1999).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요구는 주로 경제적인 요인, 국민의식의 변화요인, 세계화의 경향, 학생인구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고 보고 있으며(Mactaggart & Associated, 1996; Rowley, Lujan, & Windolf, 1997), 이러한 변화요인들을 고려하여 창조성과 유연성을 갖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질이 교사의 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과 사범대학 차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생각되는 교사의 질은 직접적으로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의 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학교 교육과정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존하며, 교사의 질은 교사양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경험(교육과정)의 질에 의존한다”는 주장(Schubert, 1986:381, 광병선, 1993에서 재인용) 등은 모두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 양성과정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주요 요인이 곧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며,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운영되는지에 대한 양성과정의 질은 교육과정 이수 후의 교사로서의 질적 역할수행의 과정과 상호 긴밀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 정책연구팀, 2000; 권순달, 1997, 허경철, 1993)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함께 교사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교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대학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어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의 교직원, 교육활동, 학생지도 등에 있어서 교직과정 이수자들에 비하여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교사 양성을 위한 목적대학으로서의 사범대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육목적 하에 설립·운영되고 있다(교육법 제119조). 첫째,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둘째,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셋째,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즉, 교육법상 사범대학 설립 목적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품성,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제외한 어떠한 대학도 그 교육목적을 법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당국은 사범대학 입시전형에서부터 수험생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적·인성검사 등을 통해 장차 교사로서의 기본소양 및 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 및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서 교육에서 접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신재철·박선영, 1991). 교사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형성을 안내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서정화, 1984)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은 특히 전문성과 함께 인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목적성을 가지게 된다. 사범대학 설립 목적에서 명기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성은 특히 오늘날과 같이 폭주하는 지식, 정보, 기술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교사양성교육기관에 대하여 예비교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인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추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교사교육은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동시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인간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개념과 '질' 개념에 대하여 김혜숙(2003)은 '교과에 대한 지식,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학생 상담 및 지도능력, 학급관리 능력, 교육적 안목, 가치관, 태도, 평생학습자로서의 자기개발능력 등의 종합'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직의 전문직적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엄격한 자격요건의 충족, 봉사지향적인 태도, 사회적 책임의 강조, 장기간의 준비교육과 계속적인 자기성장노력의 필요, 과업수행과정의 자율성, 교도의 교육기술과 자율적인 통제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김중서, 1987; 남정걸, 1985; 왕기향, 1987). 이와 같이 교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요소들은 사범대학 교육 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즉, 교직의 전문성 개념 속에는 근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인간적, 감성적, 지각적 능력을 포함하는 교육자적 인성 등이 개념화되어 있다 하겠다(손충기,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예비교사로 하여금 제반 사회·문화적, 교육공학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교과 지식과 함께 인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현행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교육법 제118조와 제119조, 제120조에 근거하여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와 제120조에 규정된 대학교과와 이수단위의 규정을 사범대학에서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가 첨가되어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범대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와 제120조에 의거 140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140학점제 하에서 사범대학 교육과정 편성은 교양과정, 일반교육이론과정, 각과 교육이론 및 실기과정, 그리고 교과내용과정으로 대별된다.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기준은 전체 학점의 30%로 하며, 전공과목은 42학점 이상, 부전공과목은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영역에서 총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 과목의 이수에 있어서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육자격 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각과지도와 교육실습은 필수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과목은 대학에 따라 다르게 편성, 운영되고 있다.

본교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영역 이수학점으로는 전공이 42학점, 전공 심화 30학점, 교직이 20학점이며, 교직은 교직이론 12학점, 교과교육 6학점, 교육실습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직이론 과목으로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7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교과교육은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범대학의 교육목표가 전인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면, 전공 교과는 물론 교직과목과 교양과목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기술의 교수-학습이 사범대학 교육과정 내에 충실히 반영·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현행 사범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140학점)과 교양과목, 전공과목에 대한 비중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교과교육학은 교육내용으로서의 지식과 그것을 유용한 지식이 되도록 가르치는 방법으로서의 교육을 통합한 실천적 교육학으로, 교과지식과 교육방법이 서로 유리되고 겹돌고 있는 교육현상을 타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과교육학은 “교사양성교육의 목표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과제로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허종갑, 1985:109)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시대적인 변화상에 부합한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그것이 적절한 과목과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가와 함께 이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수업수혜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의 요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Mayhew, Ford, & Hubbard, 1990)이나, 대학이 현실적으로 피교육자인 학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내용을 구안하는 단계에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식의 효율성 제기(Spanbauer, 1992; Chaffee, 1998),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국 대학들의 인증제도(accreditation system)도입을 통한 대학간 경쟁을 제도화하는 경향(Arash, 1991; Middlehurst, 1997) 등은 모두 교육과정의 발전적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범대학의 교육방향은 사회적인 요구를 평가·분석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적 안목과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구성원인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현행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향후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사범대학 교수 23명과 사범대 학생 27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교수 16명(65.97%), 학생 237명(87.78%)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관련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에 관한 기술 통계치

구 분	변 인	명(%)	
교수 (16명)	교육학과(6)	4(66.67)	
	사회교육과(4)	3(75.00)	
	윤리교육과(4)	2(50.00)	
	한문교육과(4)	2(50.00)	
	유아교육과(5)	5(100.00)	
학생 (237명)	교육학과	47(19.8)	
	사회교육과	39(16.5)	
	윤리교육과	10(4.2)	
	한문교육과	47(19.8)	
	유아교육과	47(19.8)	
	교직이수자	47(19.8)	
	복수전공 여부	예	162(68.4)
		아니오	75(31.6)
	입학년도	2004년	116(48.95)
		2003년	106(44.73)
2002년		12(5.06)	
2001년		3(1.27)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교직 과목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개발한 교수용과 학생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교수용과 학생용 질문지 모두 현 사범대의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학점 및 선택여부와 이수시기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전반적인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주로 4지 선다형과 자유기술형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용 질문지는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문항(3문항), 교직 이론과목에 관한 문항(8문항), 교과교육 과목에 관한 문항(6문항), 교육실습에 관한 문항(10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용 질문지는 교직 이론 과목(8문항), 교과 교육 과목(6문항), 교육 실습 과목(12문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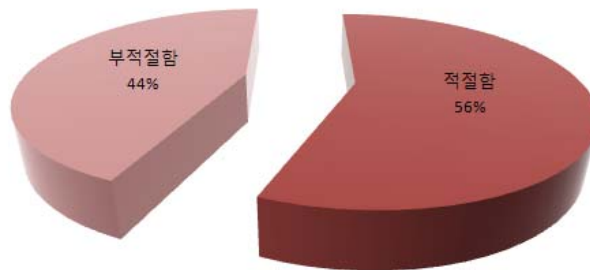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해 질문지는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 각 학과의 행정조교에 의해 학과 강의시간을 통하여 배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253부(교수 16명, 학생 237명)는 SPSS 12.0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자유기술형에 응답한 의견들은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범주화한 후 빈도 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 의견 조사결과

1)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대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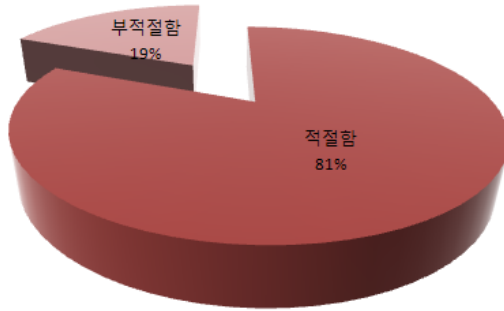
사범대학의 일반전공 이수학점(42학점)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사범대 교수들은 현행 일반전공 이수학점에 대해 ‘적절하다’ 9명(56.25%), ‘부적절하다’ 7명(43.75%)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수가 제안한 적절한 일반전공 이수학점으로는 52학점(2명), 50학점(2명), 48학점(2명), 60학점(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현행 일반전공 이수학점(42학점) 적절성에 대한 교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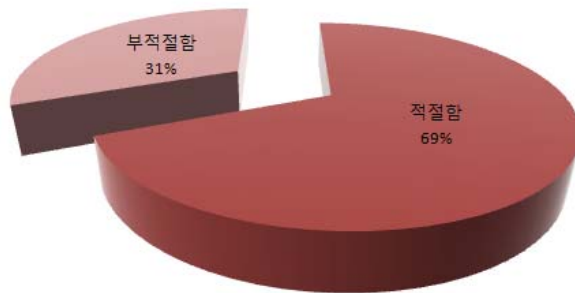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전공심화 이수학점(30학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현행 전공심화 이수학점에 대해 ‘적절하다’ 13명(81.25%), ‘부적절하다’ 3명(18.75%)으로,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심화 이수학점으로 30학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교수는 적절한 학점으로 ‘36학점(2명)’과 ‘45학점(1명)’을 제시하였다.



<그림 2> 현행 전공심화 이수학점(30학점) 적절성에 대한 교수 의견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교직 이수학점(20학점)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현행 교직 이수학점에 대해 69%의 교수들이 현행 교직이수 학점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 이수학점으로 20학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5명은 적절한 교직 이수 학점으로 ‘30학점(1명)’, ‘26학점(1명)’, ‘22학점(2명)’, ‘14학점(1명)’, ‘10학점(1명)’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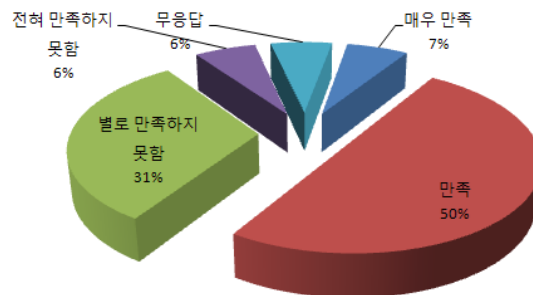
<그림 3> 현행 교직 이수학점(20학점) 적절성에 대한 교수 의견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범대 교수들은 교육과정 영역별(일반전공, 전공심화, 교직) 이수학점 중 전공심화 이수학점수(30학점)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전공 이수학점수(42학점)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5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 교직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이수로 전공 전문성이 약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교수도 있었다.

2) 교직과목에 대한 교수의 의견 조사결과

(1) 교직이론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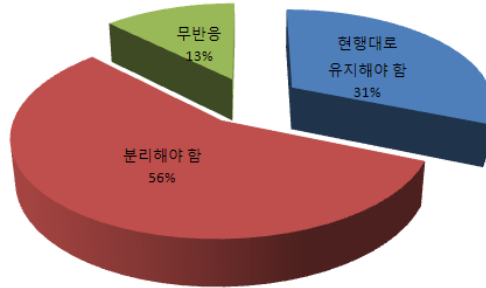
사범대학에서 개설된 교직이론 과목에 대한 교수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직이론 과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1명(6.25%), ‘만족한다’ 8명(50.00%)으로, 현행 교직과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명(31.2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명(6.25%)으로, 전체 37.5%가 현행 교직이론 과목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현행 교직이론 과목에 대한 교수 만족도

사범대학에서 개설된 교직이론 과목 중 두 영역이 통합된 교과목(예: 교육철학 및 교육사)에 대한 교수들의 생각은 그림 5와 같다. 현재 통합된 교과목들에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이 있다. 그림 5를 보면, 통합된 이들 과목들을 ‘현행대로 두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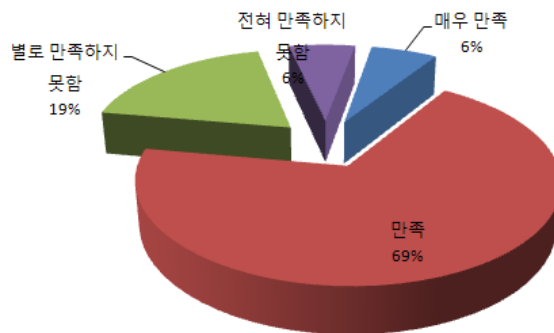
다'가 5명(31.3%), '분리되어야 한다'가 9명(56.3%)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림 5> 두 영역이 통합된 교직이론 교과목에 대한 교수 의견

한편, 교수들의 의견 중,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철학'과 '교육사'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1건 씩 나타났다. 아울러, 사범대학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직이론 과목을 조사한 결과, '교육상담', '교육학개론(사범계)', '교직윤리', '논술지도', '상담 이론과 실제', '생활지도', '아동·청년 발달과 교육', '특수 교육관련 과목', '학생이나 부모 상담 과목'으로 총 9개의 관련 과목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수가 2학점으로 운영되는 체제에 대한 응답 교수들의 반응은 그림 6과 같다. '매우 만족한다' 1명(6.25%), '만족한다' 11명(68.7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명(18.7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명(6.25%)으로 현행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5.0%가 만족하고 25.0%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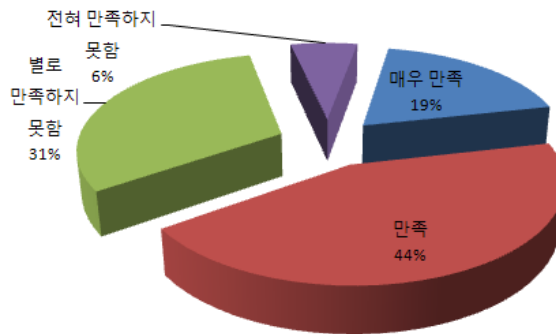
<그림 6> 교직이론 과목이 2학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학점운영체제에 대한 교수 만족도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수를 조정한다면 몇 학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18.75%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을 ‘3학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8.75%에 해당하는 교수들은 ‘2, 3학점의 혼용’을 주장하였다.

<표 2>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에 대한 교수 의견

교직 이론	사례수(%)	3학점	2, 3학점 혼용	기타	무응답	합계
교직이론 과목의 희망 학점		3(18.75)	3(18.75)	1(6.25)	9(56.25)	16(100.00)

현행 체제와 같이 이수해야 할 교직이론 과목과 이수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전체 교수의 62.5%가 현재 정해진 이수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5%는 별로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현행 교직이론 이수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한 교수 만족도

교직이론 과목의 선택과 이수 시기의 운영방안에 대한 교수의 의견은 표 2와 같았다. 즉, 이수할 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폭이 커지기를 희망하는 교수들은 전체 37.5%였으며,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희망하는 교수들은 전체 12.5%였다. 기타 의견으로 이수 과목과 시기 모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 교직이론 과목의 선택과 이수시기 운영방안에 대한 교수 의견

교직이론	사례수(%)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기타	무응답	합계
과목 선택과 이수시기 운영방안		6(37.50)	2(12.50)	4(25.00)	4(25.00)	16(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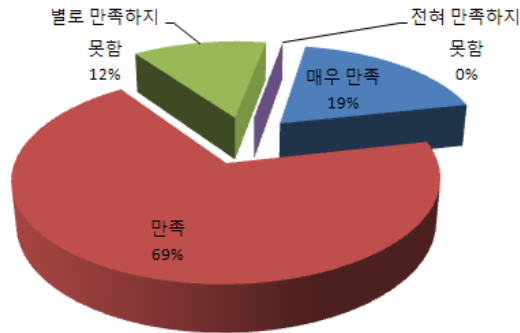
현재 교직이론 과목 운영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응답한 교수는 총 19명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빈도 순서대로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을 보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점 전환과 개설 과목 개발 및 증대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현행 교직이론 과목 운영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교수 의견

교직이론 과목 운영체제 개선방안	응답자수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 부여	6
학점 전환 (3학점 → 2명, 1학점 → 1명)	4
개설 과목 개발 및 증대	4
기타(이수시기의 다양화 및 선택권 부여, 이수학점 축소, 교육실습의 강화, 기본이수 7과목은 필수로 지정한 후 그 외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권 부여, 교과교육론 수강시기 2학년 1학기로 변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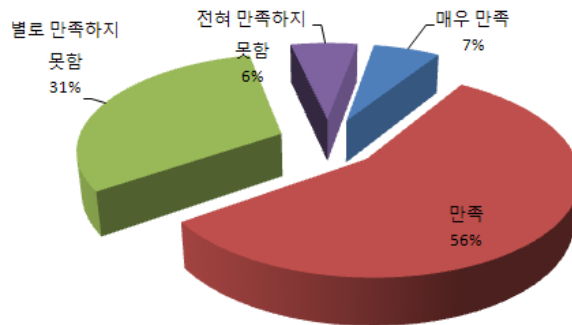
(2) 교과교육 과목

사범대학에서 개설된 교과교육 과목에 대한 교수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매우 만족한다’ 3명(18.75%), ‘만족한다’ 11명(68.75%)로, 전체 응답자의 87.5%가 현행 교과교육 과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사범대학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과교육 과목을 조사한 결과,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복수의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8> 현행 교과교육 과목에 대한 교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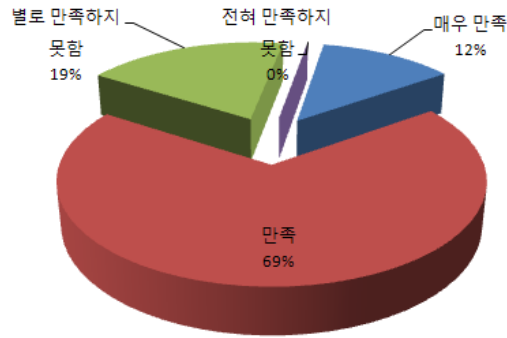
현재 교과교육 과목의 학점수가 사범대 3학점, 비사범계 2학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체제에 대한 응답 교수들의 반응은 그림 9와 같다. ‘매우 만족한다’ 1명(6.25%), ‘만족한다’ 9명(56.2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명(31.2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명(6.25%)으로, 현재 교과교육 과목의 학점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2.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사범대 3학점, 비사범계 2학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교과교육 과목 학점수에 대한 교수 만족도

이수해야 할 교과교육 과목과 이수시기가 정해져 있는 현행 체제에 대한 교수들의 만족도는 그림 10과 같다. 교과교육 과목의 이수시기가 미리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전체 81.25%의 교수들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교과교육 과목의 이수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교과교육 과목 선택과 이수시기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요구하는 사항은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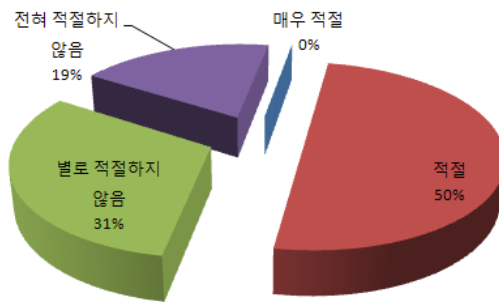
응답이 1명(6.25%),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가 1명(6.25%)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이수할 교과교육과목과 이수시기를 모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 교과교육 과목 운영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으로는 교과교육 과목을 2학점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과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복수의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림 10> 교과교육 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한 교수 만족도

(3) 교육실습

사범대학의 교육실습 학점수(2학점)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교수의 만족도는 그림 11과 같다. 전체 응답자중 ‘적절하다’ 8명이었고 ‘별로 적절하지 않다’ 5명, ‘전혀 적절하지 않다’ 3명이었다. 이는 응답 교수의 50.0%가 현행 교육실습 학점수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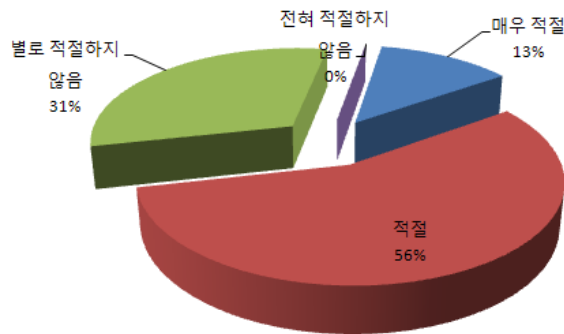
<그림 11> 교육실습 과목의 2학점 운영에 대한 교수 만족도

교육실습 희망 학점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은 표 5와 같다. 조사 결과, 교육실습 학점이 3학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37.5%, 4학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12.5%로 나타났다.

<표 5> 교육실습 희망 학점수에 대한 교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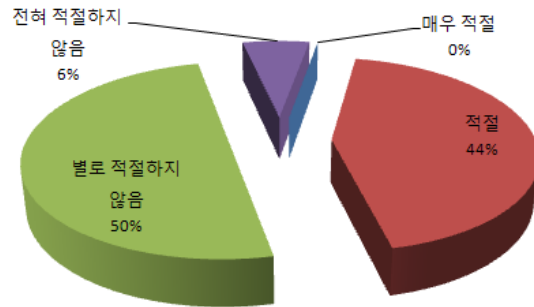
교육실습의 학점수	명(%)
3학점	6(37.50)
4학점	2(12.50)
무응답	8(50.00)
합계	16(100.00)

현재 4월에 실시되는 교육실습 시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교수의 의견은 그림 12와 같다.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에 응답한 교수는 68.75%에 해당하는 11명으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현행 교육실습 시기를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12> 현행 교육실습 시기에 대한 교수 의견

현재 사범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실습 기간(4주)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교수의 의견은 그림 13과 같다. 현재 교육실습 기간에 대해 전체 응답 교수들의 56.25%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 또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았다.



<그림 13> 교육실습 기간에 대한 교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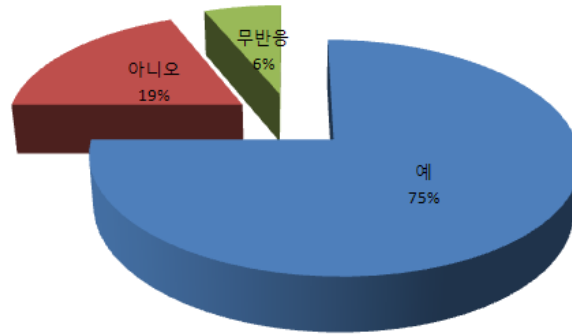
현행보다 교육실습기간이 늘려야 한다고 반응한 교수들 중,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25%가 교육실습 기간을 6주로, 18.75%는 8주로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

<표 6> 희망하는 교육실습기간에 대한 교수 의견

교육실습 기간	명(%)
6주	5(31.25)
8주	3(18.75)
12주	1(6.25)
16주	1(6.25)
무응답	6(37.50)
합계	16(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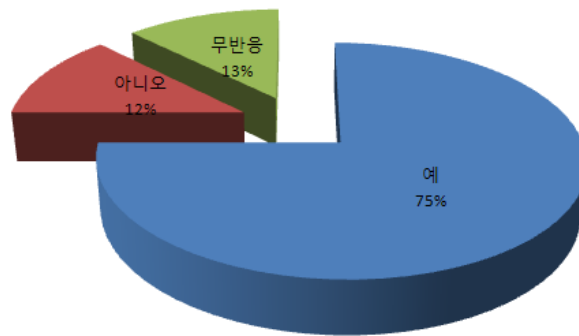
한편,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수업 관찰 방법 및 유의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평가회의 참석 요령’, ‘수업 관련 정보’, ‘행정 업무 관련 정보’, ‘교직 문화 관련 정보’, ‘학생 상담 기법’, ‘학교 현장 주관의 특강’ 등으로 반응하였다.

사전실습(보조교사제, 교육관련 사회봉사 등)의 필요여부에 대한 교수의 응답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사전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12명(75.00%), ‘필요하지 않다’ 3명(18.75%)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전실습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사전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 의견

또한 그림 15와 같이, 사후실습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과반수가 넘는 75%의 교수들은 사후실습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12.5%에 해당하는 교수들은 사후실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전실습과 함께 사후실습의 필요성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사후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 의견

아울러, 사후실습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실습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무응답을 제외한 9명(56.25%)의 모든 응답 교수들이 주 1회 정도의 사후실습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다.

<표 7> 사후실습 기간에 대한 교수 의견

교육실습	사례수(%)	주 1회	주 2회	주 3회	무응답	합계
사후실습 기간		9(56.25)	0(0.00)	0(0.00)	7(43.75)	16(100.00)

현재 교육실습 운영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자수는 총 8명으로 자유기술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면 ‘사범대와 실습 학교와의 상호보완적인 협력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마련’, ‘현장 실습 기간을 확장’, ‘사전실습의 학점화’, ‘사전실습의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설’, ‘실습생을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을 폐지하고 6~12개월의 수습교사제를 실시한 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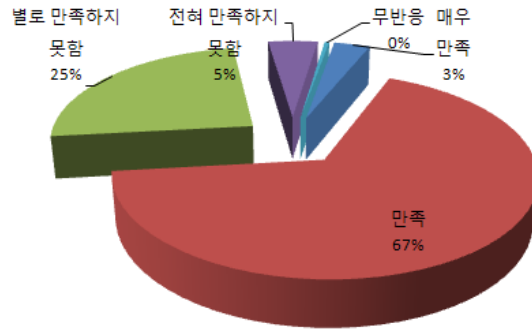
<표 8> 현행 교육실습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교수 의견

교육실습 운영체제의 개선방안	응답자 수
사범대-학교의 상호보완적 협력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마련	3
기타(현장 실습 기간의 확장, 사전실습의 학점화, 사전실습의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설, 실습생을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현행 교육실습 폐지, 6~12개월 수습교사제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5

2.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사범대 학생 의견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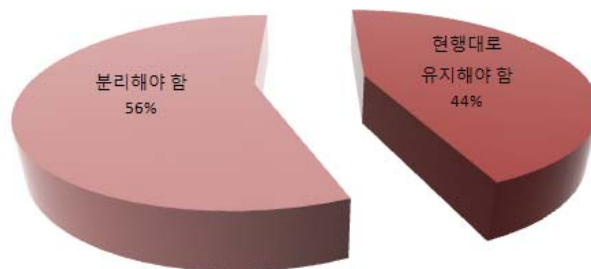
1) 교직이론 과목

사범대학에서 개설된 교직 이론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을 보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직이론 과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8명(3.38%), ‘만족한다’ 159명(67.09%)으로 교직과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8명(24.4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명(4.64%)으로 전체 29.11%의 학생들이 현행 교직이론 과목에 대해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현행 교직이론 과목에 대한 학생 만족도

사범대학에서 개설된 교직이론 과목 중 두 영역이 통합된 교과목(예: 교육철학 및 교육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그림 17과 같다. 즉, 현재 통합된 교과목들에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이 있는데, 조사 결과 반 수 이상의 학생들(56.12%)은 이들 과목들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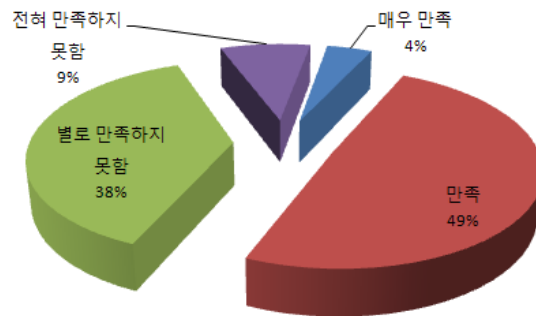
<그림 17> 통합된 교직이론 교과목에 대한 학생 의견

사범대학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직이론 과목에 대한 응답 학생은 총 86명이다. 희망과목을 빈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상담이나 한국교육사, 교육통계 교과목과 같은 임용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 교직이론 과목에서 다루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9> 개설되기 희망하는 교직이론 과목에 대한 학생 의견

희망하는 교직이론 과목	응답자수
교육상담	16
한국교육사	10
교육통계	10
교육연구	8
교육평가	5
교육학개론	5
교육인류학	5
교육의 이해	3
교직실무	3
교사론	3
교육실습이론과 실제	3
교육법률	2
특수교육	2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2
기타(심화된 교육심리, 발달심리, 교육사상사, 세계의 교직, 사법계도 개론, 평생교육론, 현 과목에서 분리된 과목들)	7

현재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 수가 2학점으로 운영되는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을 보면, 현행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3.59%가 만족하였고 46.41%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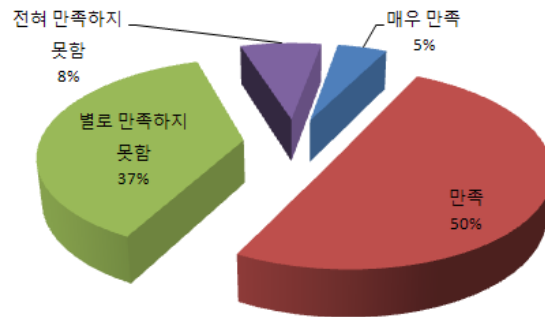
<그림 18> 교직이론 과목이 2학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학점운영체제에 대한 학생 만족도

한편,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수를 조정한다면, 몇 학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응답자 53.59%가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을 2학점과 3학점을 혼용하여야 한다고 반응하였고, 3학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학생들이 35.02%로 나타났다.

<표 10> 교직이론 과목의 학점에 대한 학생 의견

교직이론	사례수(%)	3학점	2, 3학점 혼용	기타	합계
교직이론 과목의 희망 학점		83(35.02)	127(53.59)	27(11.39)	237(100.00)

현행 체제와 같이 이수해야 할 교직이론 과목과 이수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를 보면, 응답 학생 중 54.85%가 현재 정해진 이수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14%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현행 교직이론 이수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한 학생 만족도

교직이론 과목의 선택과 이수시기의 운영방안에 대한 학생의 의견은 표 11과 같다. 즉, 이수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체 30.80%였으며,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49.37%였다. 기타로는 ‘필수교직과 선택교직 등 교직과목의 다양화’, ‘교직 이론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난이도에 따른 이수시기 결정’, ‘계절학기 운영’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표 11> 교직이론 과목의 선택과 이수시기 운영방안에 대한 학생 의견

교직이론	사례수(%)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기타	합계
과목 선택과 이수시기 운영 방안		73(30.80)	117(49.37)	47(19.83)	237(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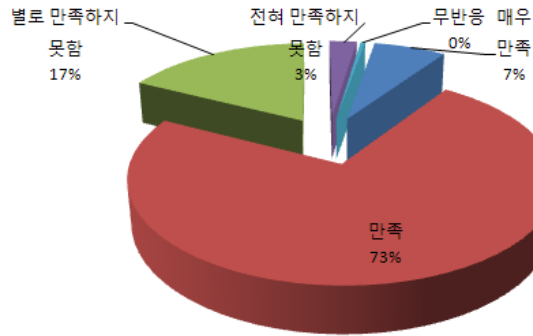
현재 교직이론 과목 운영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자는 총 98명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빈도 순서대로 요약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을 보면, 응답자들은 수업의 질과 교수의 질 향상, 교직과목의 자유선택을 위한 과목과 이수시기의 다양화, 임용고사를 위한 운영체제, 통합된 교과목 분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12> 현행 교직이론 과목 운영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학생 의견

교직이론 과목 운영체제 개선방안	응답자수
수업의 질, 교수의 질 향상	18
교직과목의 자유선택을 위한 과목의 다양화	14
이수시기의 다양화	12
임용고사를 위한 운영체제	12
통합된 교과목 분리	11
다양한 교수 필요	7
수업시수 확대	5
학점 상향조정 필요	5
실습위주의 운영	4
계절학기 운영확대	3
수강인원 축소	2
기타(전공과목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 비사대 과목수 증가,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는 운영, 절대평가로 운영, 과목들간의 통합된 것을 분리할 것)	5

2) 교과교육 과목

사범대학에서 개설된 교과교육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79.75%가 현행 교과교육 과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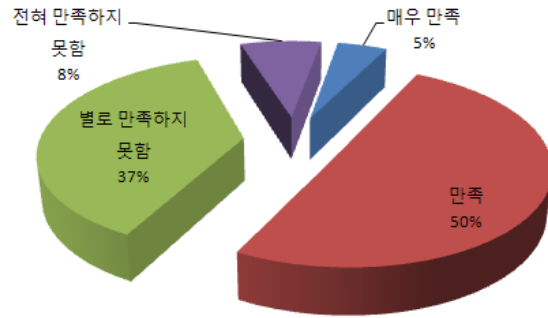
<그림 20> 현행 교과교육 과목에 대한 학생 만족도

사범대학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과교육 과목에 대한 응답 학생은 총 31명이다. 학생들은 교과교육 과목에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는 과목’이나 ‘교재교구 연구 및 개발 과목’이 강화되는 것을 희망하였다. 응답자의 의견을 빈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을 보면, 학생들은 교과서 및 지도서 이해, 교과교재 연구 및 개발, 현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목 등을 개설해 주기를 희망했다.

<표 13> 개설되기 희망하는 교과교육 과목에 대한 학생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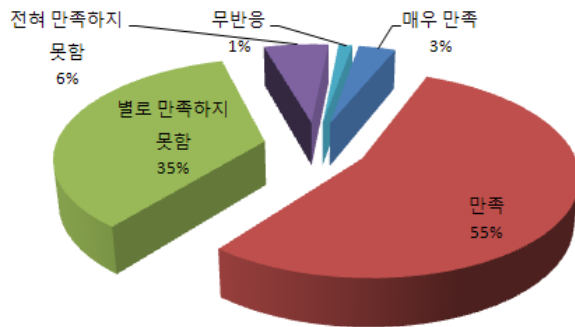
희망하는 교과교육 과목	응답지수
교과서 및 지도서 이해(교과서 분석)	5
교과교재 연구 및 개발	5
현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목	3
실습대비 과목	2
한국교육사	2
교과교육 공학	2
교수학습방법	2
기타(문학수업, 교직이론 과목, 상담, 역사, 보육교육, 유아체육, 특수교육,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실제, 현재에 만족)	10

현재 교과교육 과목의 학점수가 사범대 3학점, 비사범계 2학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교과교육 운영체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54.85%가 현행 교과교육 운영체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사범대 3학점, 비사범계 2학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교과교육 과목 학점수에 대한 학생만족도

현행 체제와 같이 이수해야 할 교과교육 과목과 이수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를 보면, 교과교육 과목의 이수시기가 미리 정해진 것에 대해 전체 57.81%의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40.93%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과교육 과목의 이수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교과교육 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한 학생 만족도

교과교육 과목 선택과 이수시기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은 표 14와 같았다. ‘이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6.29%,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응한 학생은 전체의 55.70%로, 교과교육 과목과 이수시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수시기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현직교사와 연계된 현장중심·실제 중심의 강의', '교과교육 과목의 선택 범위 및 적절한 시간 안배' 등의 의견도 있었다.

<표 14> 교과교육 과목 선택과 이수시기 개선에 대한 학생 의견

교과교육	사례수(%)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기타	합계
과목 선택과 이수시기		86(36.29)	132(55.70)	19(8.02)	237(100.00)

현재 교과교육 과목 운영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응답한 학생은 총 33명으로 자유 기술 의견을 빈도 순서대로 요약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를 보면, 교과교육 과목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과목수의 증설과 세부 전공별로 전문적인 교수의 보충 문제, 실습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개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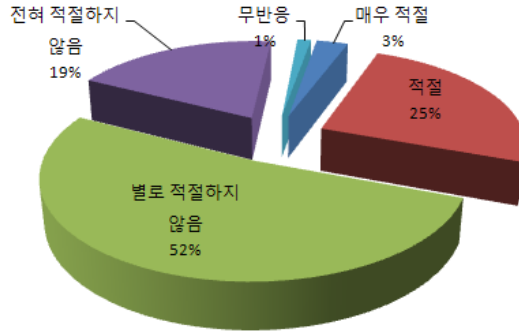
<표 15> 현행 교과교육 과목 운영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학생 의견

교과교육 과목 운영체제 개선방안	응답자수
세부 전공별로 전문교수 필요	8
다양한 과목수 증설	7
실습과목 강화	6
이수시기의 융통성	4
교과목 시수 확대	3
비사범대학과의 형평성 재고	3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 이해의 수업	2

3) 교육 실습

사범대학의 교육실습 학점수가 2학점인 것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림 2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적절하다' 7명(2.95%), '적절하다' 59명(24.89%)이었고 '별로 적절하지 않다' 123명(51.90%), '전혀 적절하지 않다' 45명(18.99%)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응답자 전체 70.89%가 현 교육실습 학점수에 대해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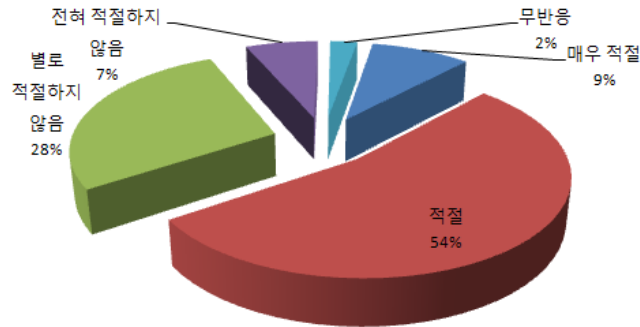
<그림 23> 교육실습 과목의 2학점 운영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재 2학점으로 운영되는 교육실습의 학점수를 조정한다면 몇 학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6과 같다. 조사 결과, 교육실습 학점이 현재 2학점보다는 3학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학생이 134명으로(56.54%) 가장 많았다.

<표 16> 교육실습 희망 학점수에 대한 학생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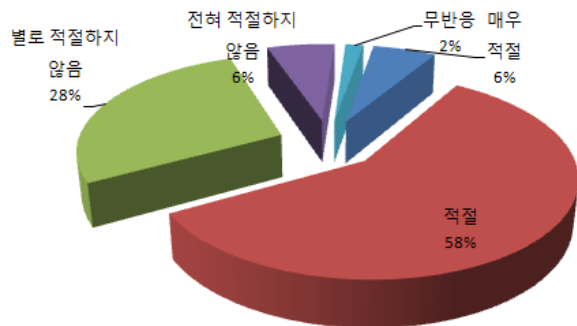
교육실습의 학점수	명(%)
1학점	1(0.42)
2학점	4(1.67)
3학점	134(56.54)
4학점	30(12.66)
5학점	10(4.22)
6학점	4(1.69)
8학점	1(0.42)
10학점	3(1.27)
무응답	50(21.10)
합계	237(100.00)

현재 4월에 실시되는 교육실습 시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를 보면,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에 응답한 학생이 전체 62.87%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행 시기를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현행 교육실습 시기에 대한 학생 의견

현재 사범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실습 기간 4주가 적절한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를 보면, 현행 교육실습 기간에 대해 전체 응답 학생의 64.14%가 ‘매우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25> 현행 교육실습 기간에 대한 학생 의견

교육실습 기간이 조정된다면 몇 주가 적당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7과 같다. 응답 학생들의 18.99%가 교육실습 기간으로 8주 기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표 17> 희망하는 교육실습기간에 대한 학생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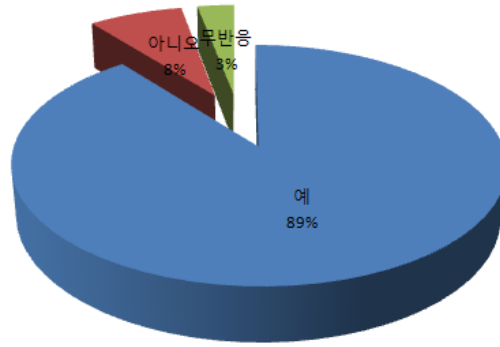
교육실습 기간	명(%)
2주	2(0.84)
3주	11(4.64)
4주	13(5.49)
5주	3(1.27)
6주	16(6.75)
7주	2(0.84)
8주	45(18.99)
10주	2(0.84)
12주	7(2.95)
16주	5(2.11)
무응답	131(55.27)
합계	237(100.00)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 응답한 학생은 총 104명으로 의견을 빈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 제시한 의견은 ‘실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및 유의사항’이었으며, 그 다음 ‘구체적인 지도방안 및 실습일지 작성법’으로 나타났고, ‘복장 및 기본예절’과 같은 교생의 일반적인 태도교육 내용을 요구한 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표 18> 교육실습전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대한 학생 의견

교육실습전 오리엔테이션 내용	응답자수
실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및 유의사항	22
구체적인 지도방안 및 실습일지 작성법	18
복장 및 기본예절, 교생 태도교육	15
실제로 실습하게 될 내용	13
현장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형성	12
선배들과의 경험 공유(간담회)	7
학생들의 문화, 학생 요구	5
현재내용에 만족	6
사전실습, 간접체험(참관)	3
기타(실습학교 선정방법 및 요령, 해당 교과서 검토, 실제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자료제작법)	3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 교육현장에서 미리 실제 경험을 해보는 사전실습(보조교사제, 교육관련 사회봉사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을 보면, 응답자의 89.45%가 사전실습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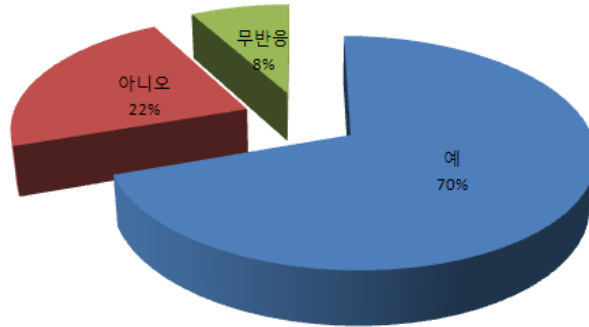
<그림 26> 사전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 의견

학생들의 교육실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참관, 수업보조, 수업실습, 학급경영, 생활지도, 실습평가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19를 보면, 조사된 세부항목 중 ‘수업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22.78%에 해당하는 54명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보조’, ‘수업 참관’, ‘실습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합하여 볼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나타냈던 것은 ‘생활지도’와 ‘학급경영’으로 나타났다.

<표 19> 교육실습 내용에 대한 학생 만족도

교육실습	사례수(%)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수업참관	45(18.99)	102(43.04)	19(8.02)	2(0.84)	69(29.11)	237(100.00)
수업보조	33(13.92)	107(45.15)	25(10.55)	3(1.27)	69(29.11)	237(100.00)
수업실습	54(22.78)	94(39.66)	14(5.91)	3(1.27)	72(30.38)	237(100.00)
학급경영	30(12.66)	93(39.24)	37(15.61)	4(1.69)	73(30.80)	237(100.00)
생활지도	34(14.35)	90(37.97)	38(16.03)	4(1.69)	71(29.96)	237(100.00)
실습평가	45(18.99)	95(40.08)	19(8.02)	4(1.69)	74(31.22)	237(100.00)

교육실습이 이루어진 후에 계속해서 교육현장에서 실습하는 사후실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을 보면, 전체 과반수가 넘는 69.62%의 학생들이 사후실습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22.36%가 사후실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사전실습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조금 낮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후실습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7> 사후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 의견

사후실습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실습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응답자의 49.37%가 주 1회 정도의 사후실습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다.

<표 20> 사후실습 기간에 대한 학생 의견

교육실습	사례수(%)				
	주 1회	주 2회	주 3회	무응답	합계
사후실습 기간	117(49.37)	46(19.41)	5(2.11)	69(29.11)	237(100.00)

교육실습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학생들이 실습에 나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실습학교 선정이 전체 26.16%를 차지하였고, 교육현장의 이해 부족도 20.68%나 되었으며, 교생 업무과중 및 대학시험이 모두 13.92%로 나타났다.

<표 21> 교육실습 중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학생 의견

교육실습	사례수(%)	실습 학교 선정	교육 현장 이해 부족	교생 업무 과중	대학 시험	교사 관계	학생 관계	동료 관계	무응답	합계
가장 어려운 점		62 (26.16)	49 (20.68)	33 (13.92)	33 (13.92)	15 (6.33)	4 (1.69)	1 (0.42)	40 (16.88)	237 (100.00)

현재 교육실습 운영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88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의견을 빈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를 보면, 21명의 학생들은 실습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고, 특히 2달 또는 3달로 연장 운영될 것을 제안하였다. 실습기관을 학생들이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은 표 21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의견 조사에서도 총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범대가 지정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교육실습기간 동안 다른 학교과제물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전·사후실습의 일관적인 운영의 필요(9명)와 실습학교와 기간의 융통성(8명),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의 현실화(8명) 등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다.

<표 22> 현행 교육실습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학생 의견

교육실습 운영체제의 개선방안	응답자수
실습기간의 연장	21
실습학교 지정제	17
실습기간 중 학교과제물 부담 줄이기	14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운영체제(사전, 사후실습포함)	9
실습학교 및 실습기간의 융통성	8
현실적인 사전 교육내용 개선	8
사범대와 실습학교간의 원활한 교류	4
실습시 잡무과중을 감소시키기	3
선배와의 간담회 마련	2
실습일지 폐지 및 형식변경	2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구성원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현행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원하는 지에 관한 요구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간단히 요약·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대한 조사 결과, 현행 4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전공 이수학점,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공심화 이수학점, 2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직 이수학점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6. 11.17)을 마련, 2008학년도 입학생(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해 사범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득하게 되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체제를 개선하고자 교사양성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강화하였다. 이 최소기준에 의하면, 사범대학생들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경우 교과내용 영역에서 42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에서 8학점 이상으로 총 5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부전공의 경우에는 교과내용 영역에서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에서 8학점 이상, 총 3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이번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전공) 개편에서 두드러진 것은 현행 전공과목 42학점에서 기존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교과교육 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50학점으로 개편한 것과 현행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 과목을 14학점(5과목)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교직이론을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직소양을 4학점 이상, 교육실습을 4학점 이상, 총 22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교수들이 현행 2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직 이수학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개편방안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직 이수학점에 대한 변화 추세 등을 널리 홍보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현행 사범대학에 개설된 교직이론 과목에 대하여, 비록 교수들(57%)보다는 학생들(70%)이 더 높게 만족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과 같이 교직이론 과목 중 두 영역이 통합

된 교과목의 경우,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교직이론 과목이 2학점으로 운영되는 현행 학점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비록 교수들(75%)이 학생들(53%)보다 더 만족하여 양자 간에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양자 모두 현행 학점운영체제에 만족하였다. 특히 학점운영체제에 불만족한 교수들과 학생들은 모두 3학점이나 2학점과 3학점을 혼용하는 것이 절절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직이론 이수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하여, 교수들(63%)이 학생들(55%)보다 더 만족하여 양자 간에 의견차가 있었지만, 양자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으며, 후자의 경우 교수들은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반면 학생들은 이수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반응하여 양자 간에 현행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에 의견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현행 교직이론 과목의 운영체제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운영체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상당히 되는 바, 이들의 요구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범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교육 교과에 대하여, 교수들(88%)이나 학생들(80%) 모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범대학의 경우 3학점, 비사범계의 경우에는 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교육 학점수에 대해서도 양자(교수: 63%; 학생: 55%)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행 운영체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상당히 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요구분석이 요구되며, 이에 터한 적절한 개선방안이 마련·시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과교육 과목과 이수시기에 대하여 비록 교수들(81%)이 학생들(58%)보다 훨씬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 간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지만, 양자 모두 전반적으로 현행 운영체제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교과교육 학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히 학생들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현행 운영체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사범대학의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현행 교육실습 학점수가 2학점인 것에 대해 교수들은 과반수(50%)가 만족하고 있는 데 반해 학생들은 28%만이 만족하고 있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경우, 2/3이상이 현행 2학점으로 운영되는 교육실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육실습이 3학점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교

육실습을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총 4학점 이상으로 개정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행 4학년 1학기 4월에 행해지고 있는 교육실습 시기에 대하여 교수들은 69%, 학생들은 64%가 적절하다고 반응하였으며, 현행 4주인 교육실습 기간에 대해서는 교수는 44%, 학생들은 63%가 적절하다고 반응하여 양자 간에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교수들 중 과반수가 현행 4주인 교육실습 기간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며, 만족하지 않은 교수들 대부분이 교육실습 기간을 6주 정도가 적절하다고 반응하였으며,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비록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지만 상당수가 8주 정도가 적절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현행 4주로 되어 있는 교육실습 기간을 6주로 연장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사전실습과 사후실습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매우 필요하고, 사후실습은 대략 1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반응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교육실습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구체적인 지도방안과 실습일지 작성법, 복장 및 기본예절, 교재 태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기를 원했으며, 수업참관, 수업보조, 수업실습, 학급경영 등과 같은 교육실습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고, 교육실습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실습학교를 선정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범대학이 학생들이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부터 교육실습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육실습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좀 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고려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곽병선 (1993). 학교 교육의 적합성과 교사의 문제. *교육과정연구*, 11, 3-19.
- 국립사범대학 학장협의회 정책연구팀 (2000). *국립사범대학표준교육과정*.
- 권순달 (1997). 교사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의 검증. *교육평가연구*, 10(1), 43-74.
- 김중서 (1987). 대학의 학문연구 어디까지 왔나. *민족지성*, 13(3), 112-120.
- 김혜숙 (2003). 교원 "전문성"과 "질"의 개념 및 개선전략 탐색. *교육학연구*, 41(2), 93-114.
- 남정걸 (1985). 학교조직의 응집력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1(3), 47-66.
- 서정화 (1984). 교원임용제도의 과제와 전망. *새교육*, 351(1), 50-56.
- 손충기 (2004). 사범대학 교육과정 편성·운영방법 개발을 위한 교사의 요구 분석 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251-271.
- 신재철, 박선영 (1991). 교원교육과 교육학 교육. *교육학연구*, 29(3), 39-54.
- 왕기향 (1988).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을 위한 면접고사기본모형개발*. 중앙교육평가원
- 전성연 (1999). 대학 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육학연구* 37(2), 323-344.
- 허경철 (1993). 중등 교육과 교사 교육과정과의 문제. *교육과정연구*, 11, 69-82.
- 허종갑 (1985). 사범교육에서의 교과교육의 중요성. *과학교육논총*, 10(12), 59-65.
- Arash, A. (1990). The attributive theory of quality : A model for quality measurement in higher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Chaffee, E.E. (1998). Listening to the people we serve. In W. G. Tierney(Ed.), *The responsive univers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ctaggart, T. J., & Associates (1996). *Restructuring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ayhew, L. B. , Ford, P. J., & Hubbard, D. L. (1990). *The quest for quality*.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Middlehurst, R. (1997). Enhancing quality. In F. Coffield & B. Williamson(Eds), *Repositioning higher education*. Buckingham :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 Open University.
- Rowley, D. J., Lujan, H. D., & Dolence, M. G. (1997). *Strategic chang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Schubert, W. H. (1986). Curriculum :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 New York: McMillan Publishing Company.

Spanbauer, S. J. (1992). A quality system for education. Milwaukee: ASQC Quality Press.

ABSTRACT

Curriculum Reorganization for improving teaching professionalism

- Needs Analysis of Professors and Student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ok Jae, Lee
Young Hee, Chang
Seak Zoon, Roh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how professors and student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nk about current curricular offered from the college, and instructional methods, and 2) to analyze their needs about how they want those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methods to be changed.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wo groups of participants(23 professors; 270 students at the college) and 253 questionnaires(16 professors; 237 students) were collected. Using SPSS 12.0,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Open-ended question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by frequenc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rofessors thought that the number of the credits for general major and in-depth major was appropriate, and teacher-training courses being consisted of 20 credits were also suitable.

Second, the statistics showed that professors(57%) and students at the

college(70%) were satisfied with the subjects dealing with the theories of teaching professions, which were offered from the college, and most professors and students insisted that the combined courses which were currently offered for teaching professions should be divided into two courses.

Third, professors(50%) were more highly satisfied with the current teaching practice credits(2 credits) than students(28%) at the college did.

In summary, the trends of the courses and credits for teaching professions should be widely announced and the curriculum of each department should be reorganized. In addition, continuing reorganization efforts for developing systematic and effective curricular in order to train the qualified pre-service teachers should also be made.